

# 전주 경제인들 “특례시 지정을”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지부·소상공인연합회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지부와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광역시 없는 전북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주시 경제의 한 축인 이들 단체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잠재된 지역경제와 대기업의 골목상

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5천 명의 서명부를 시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지부 임규철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서명부스를 직접 운영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에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진안 의료원에 조카 주요 보직 채용 압력”

경찰, 이향로 진안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이향로 진안군수가 의료원에 자신의 조카 등을 주요 보직에 채용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직권남용 혐의로 이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을 도운 면접 심사위원과 군 공무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수와 이들 공무원의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채용된 인원 중 이군수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2016년 군 의료원의 채용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이군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채용과정에 실제 참여했던 면접관으로부터 군 공무원의 인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이군수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한편, 이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측근들과 공모해 수천만원 상

당의 홍삼엑기스 제품을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산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현재 이군수는 광주교법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강석훈 기자

## 60대 조현병 환자 병원 입원 조치

경찰이 흥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조현병 환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2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6분경 정읍 시내 한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흥기를 든 남자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흥기를 든 A모(63)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접이식 나이프 등 흉기 2개를 소지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십수 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기르던 동물을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관내 14개 유관기관과 단체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군산지역 해양오염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 군산해경, 유관기관과 해양오염사고 대책 마련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관내 14개 유관기관과 단체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군산지역 해양오염 방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기관(단체)별 역할과 임무, 주요 해양오염사고의 방제회의 및 방제대책 사례를 공유했다.

또 유처리제 사용지침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군산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 수정사항

을 심의 의결했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사고는 사고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제조치가 우선이다”며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오염사고 방제대책협의회는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 방제협력 및 지원을 위해 구성된 비상설 조직이며 평상시엔 오염사고 대비 지역 방제실행계획 심의·의결 및 기관별 임무·역할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 봄꽃 ‘만개’ 분홍빛으로 물들었네?

전주시립 완산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완산공원 꽃동산에 봄꽃이 만개했다.

이곳은 매년 봄 화사한 봄꽃으로 장관을 이루면서 도심 속 꽃구경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도서관은 23일 꽃동산에서 기자들과 함께 상춘객들이 봄비를 개화하기에 맞춰 꽃 축제가 펼쳐지는 이곳을 둘러봤다.

약 1만 5000㎡(4500여평) 면적의 완산공원 꽃동산에는 철쭉과 겹벚꽃나무, 꽃해당화, 배롱나무, 황매화 등 약 1만 그루가 심어져 매년 봄마다 상춘객을 불러 모은다.

### 완산공원 꽃동산 시민 명소로 각광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절정을 이루는 이곳은 겹벚꽃과 어린 키 만만철쭉이 만개를 이룬다.

특히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봄꽃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이곳에는 완산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어 독서와 함께 봄의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봄꽃이 만개한 이 계절에 전주 시민이 함께 책 읽는 재미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 일상적인 삶 속에 스며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대한민국 책의 도시 전주의 대표 책 축제인 ‘2019 전주 독서대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평생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출판·독서·서점·문화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한벽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 학교를 주 행사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시내버스 중간시간표 도입 정시성 확보

전주시, 7월부터 409대, 4105회 운행 시간표 도입키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발해 버스를 놓치는 승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전주시내버스 운행시간별 중간시간표제가 도입된다.

전주시는 오는 7월부터 전체 시내버스 409대, 총 4105회 운행시간대별로 중간시간표를 도입해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버스의 시간표는 기·종점(처음 출발지) 출발시간만 운영하고 이를 어길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형태로 운행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민원사항 중 무정차·과속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선 중간에 적절한 중간시간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중간시간표가 도입되면 버스기사들이 정해진 시간대를 지켜 운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에 맞춰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음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발한 버스로 인해 겪어야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

다.

앞서, 전주 시민의버스위원회는 지난 11일 시내버스 중간시간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안전으로 채택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만장일치로 안전이 통과돼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으로 운전자의 휴식시간이 보장된 만큼, 중간시간표 도입은 무정차뿐만 아니라 전주시내버스가 안전한 버스로 가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의회 청렴다짐교육 수료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은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청렴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다짐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교육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로서 지방의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리더십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의정활동 과정에서 꼭 필요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렴이라는 주제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낸 청렴콘서트와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한 개인별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의지를 높였다. /송효철 기자

## 국제영화제 대비 대테러 훈련

전북경찰이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두고 대테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 국제영화제 기간 중 상영관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전북청 주관으로 완산경찰서, 국정원, 육군 35사단, 공군 38전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민관소방서, 전주시 등 7개 기관이 동참했다. /강석훈 기자

## 경증 만성질환자 맞춤형 자기관리 체계 구축

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 된다.

전주시보건소는 경증 만성질환자의 동네 병의원 등 일차의료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자 맞춤형 자기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목적은 고혈압과 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또 진료지침에 따른 치료를 통해 조절을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시범사업에 등록을 하면 포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년간의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환자의 체계적 질환관리를 위해 내소진료와 교육, 상담은 물론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환자의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상태를 점검·평가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인권침해 상담·조사체계 구축 간담회

전주시가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 내 인권침해와 성희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주시인권센터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총 5회에 걸쳐 982개 출연·위탁시설 대표와 업무담당자, 22개 소관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상담·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과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직원들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효철 기자

주요 교육내용은 △기관·시설별 인권침해 예방활동 △모니터링 등 인권담당자의 역할 논의 △기관·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요령(매뉴얼) 공유 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임원 등 간부대상 인권교육 실시 안내 등이다.

특히 전주시인권센터는 각 기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상담과 신고 등 적절한 구제절차 대응이 미흡한 만큼, 각 기관·시설별 인권담당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술 취해 관광버스 몰던 30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혀

술에 취한 채 관광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0분경 경찰이 출동하자 익산시 부송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45인승 관광버스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주차된 버스에서 음악이 너무 크게 들린다”는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이 다가와 문을 두드리자 버스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들을 보고 도주한 점과 112 신고 내용 등에 비춰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추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이 예상 도주해 등 주요 골목을 차단하고 나서야 버스를 세웠다.

경찰은 A씨가 버스를 몰고 3km 가량을 달아났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가 좁은 골목길로 도주해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출동 경찰들의 현명한 대처로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모텔서 지인 여성 강간 살해

전북 남원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강간 및 살인 혐의로 A모(54)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남원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B모(44·여)씨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지자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주변에 다량의 혈흔 등이 발견돼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 동숙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됐고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B씨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찰은 A씨가 사건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고, 이로 인해 A씨는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목격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경찰관 얼굴에 천원짜리 지폐 던지던 만취 20대 검거

경찰관 얼굴에 천원을 던지고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만취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A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동을 떨치던 경찰관의 얼굴에 천원을 던지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인근 한 술집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